

Katherina의 변신과 Cressida의 변신

—The Taming of the Shrew와 Troilus and Cressida에 나타난 여성문제—

이 영 미

I.

Shakespeare의 *The Taming of the Shrew*에 나오는 Katherina와 *Troilus and Cressida*의 Cressida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른 인물들이지만, 둘 다 가부장제의 세계에서 거부되는 여성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Katherina는, 제목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shrew”라는 성질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Katherine the curst”라는 그녀의 별칭은 “A title for a maid of all titles the worst” (I. ii. 128-29)¹⁾라고 평가되고 있다. “As false as Cressid” (III. ii. 194)²⁾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기억될 운명으로 그려진 Cressida는 “wanton,” “sluttish,” “whore” 등으로 불리운다. 이러한 평가는 그들에 대한 작중 다른 인물들의 평가일 뿐이며, Shakespeare 자신이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아가 현대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좀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터인데, 전통적으로 비평가들이 Kate나 Cressida를 바라보는 관점은 작중 인물들에 의해 내려진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³⁾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지고, 가부장제의 논리에 물든 여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평가일 뿐이다. 이들을 평가하는 데에 Feminism 문학이론이 유용한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Feminism의 이론을 빌어서 이들의 행동과 존재방식을 해석하면 전통적인 평가와는 다른 의미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즉, shrew란 남성의 지배와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며, whore는 그들의 합법적이고 확실한 상속인을 보장받는 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성형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읽으면 극중에서의 Kate나 Cressida의 행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eminism의 시각에 입각한 작품 분석은 단지 문학작품 속에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혹은 작가의 여성관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를 따지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배해온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1) William Shakespeare, *The Taming of the Shrew*, ed. Brian Morris, Arden Edition (London: Methuen, 1981)을 text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본문의 인용은 act, scene, line 만을 밝히겠음.

2) William Shakespeare, *Troilus and Cressida*, ed. Kenneth Palmer, Arden Edition (London: Methuen, 1982)를 text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본문의 인용은 act, scene, line만을 밝히겠음.

3) 예를 들어 Katherina에 관해 H.B. Charlton은 “She is intolerably curst and shrewd and froward so beyond all measure”라고 평가하고 있다. E.M. Tillyard는 Troilus의 사랑을 “tragically misplaced”된 “noble devotion”으로 보는 반면 Cressida에 관해서는 “shallow, hard, lascivious”라고 평가한다. H.B. Charlton, *Shakespearean Comedy* (London: Methuen, 1938), p. 97; E.M. Tillyard, *Shakespeare's Problem Plays* (1950; rpt. Harmondsworth: Penguin, 1965), p. 51, 87.

재평가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⁴⁾ 특히 Kate나 Cressida처럼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된 여성의 문제를 재고해 보는 데에는 Feminism의 시각이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⁵⁾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의거하여 *The Taming of the Shrew*와 *Troilus and Cressida*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Shrew*의 경우는 마지막 장면(5막 2장)에서의 Kate의 변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Troilus*의 경우는 Cressida의 변신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도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터이므로, Kate와 Cressida의 문제를 그들이 속한 세계와 관련시켜서 고찰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은 물론이다.

II.

Katherina의 shrewishness, 즉 입이 거칠다는 점이 남성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단지 수다스럽다거나 바가지를 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기존의 질서, 즉 가부장제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남성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⁶⁾ 즉 “shrew”라는 이름에 부과되는 부정적인 어감은 가부장제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따라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The Taming of the Shrew*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세계는 무엇보다도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고 결혼을 상업적 거래로 생각하는 사회이다. Petruchio가 애초부터 Kate의 지참금을 노리고 그녀를 목표로 삼은 것은 자기자신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이며, 이는 Kate의 길들이기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다. 이들의 관계에 비하면 그래도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로 평가되는 Bianca의 결혼의 경

- 4) Feminism 문학비평은 크게 보아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주로 남성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연구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새로 발굴하고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Elaine Showalter의 경우는 이를 “woman as reader”와 “woman as writer”라고 분류하면서 Feminism 문학비평이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woman as writer”에 대한 연구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는 Feminism 문학비평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Feminism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시각이 아닌 “여성중심적인” 배타적 시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우려조차 있다고 생각된다. Elaine Showalter, “Toward a Feminist Poetics,” & “Feminist Criticism in the Wilderness,” in Elaine Showalter ed., *The New Feminist Criticism: Essays on Women, Literature, and Theory* (London: Virago, 1986), pp. 125-43, pp. 243-70, 특히 pp. 245-47 참조.
- 5) Jonathan Culler는 여성의 시각으로 작품을 읽는 것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성중립적이고 Feminism이 특정한 시각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뒤집을 수 있게 해주며, 남근비평의 약점을 설득력있게 비판할수록 Feminism 비평은 포괄적 비평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Shrew*와 *Troilus*에 대한 남성 비평가들의 오독을 밝혀내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1983; rpt. London: Routledge, 1989), pp. 43-64, 특히 55-56 참조.
- 6) *The Taming of the Shrew*를 한국어로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오역이라고 생각된다. Shrew란 “입이 사나운 여자”, “잔소리가 심한 여자”를 뜻하는 말로서, 원래는 남성에게도 쓰이던 단어가 이후에 여성의 경우에만 쓰이게 된 것인데(SOD 참조), 우리 말의 “말괄량이”가 주는 어감과는 거리가 멀다. 언어를 통한 남성への 도전에 대해서는 Lisa Jardine, *Still Harping on Daughters: Women and Drama in the Age of Shakespeare*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3), pp. 103-20 참조.

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자 그대로 신부가 경매에 붙여지고 있을 따름이다. Kate의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Bianca의 경매는 시작된다.

Bap. 'Tis deeds must win the prize, and he of both
That can assure my daughter greatest dower
Shall have my Bianca's love.

(II. i. 335-37)

이때 Gremio는 자신이 이미 늙었으므로 머지 않아 죽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울 정도로 둘의 결혼을 다름아닌 재산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Baptista 역시 Lucentio로 변장한 Tranio의 높은 입찰가에다 아버지의 보증을 요구하며 거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들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Bianca의 의사는 물어볼 생각조차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철저하게 상품 취급을 당한다. 결국은 Bianca가 사랑하는 Lucentio와 맺어지기는 하나, 이 구애의 과정에서 Lucentio는 자신의 가문과 재산에 대한 강조를 빼놓지 않는다.

Katherina의 shrewishness라는 것은 이처럼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사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며,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Kate 자신이 가부장제 내에서의 여성의 억압과 상품화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거해 그 테두리 내에서 정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반응은 얼핏 보면 막무가내로 날뛰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is it your will/To make a stale of me amongst these mates?" (I. i. 57-58)라고 한다든가 "Call you me daughter? Now I promise you/You have show'd a tender fatherly regard/To wish me wed to one half lunatic" (II. i. 278-80)라고 말하는 등,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예리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에 내포된 이러한 건강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의 같은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Bianca를 적대시하고 괴롭히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Kate가 "길들여지는" 과정이 *The Taming of the Shrew*의 줄거리라는 데에 있다. 그 "길들이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자. Bianca의 경매가 사랑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하에 이루어졌던 반면, Petruchio는 아예 드러내놓고 결혼과 재산증식을 동일시하고 있다.

Pet. And I have thrust myself into this maze,
Haply to wive and thrive as best I may.

.....

I come to wive it wealthily in Padua
If wealthily then happily in Padua.

(I. ii. 54-55, 74-75)

그리하여 그는 Baptista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거래부터 시작하며, Kate를 한 번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합의본다. 여기에는 "the special thing.../That is, her love" (II. i. 128-29)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하며, Bianca의 경우는 이런 단서조

차도 없이 거래가 끝난 것에 비하면 Kate는 적어도 shrewishness 덕택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는 셈이다.⁷⁾ 그러나 Kate의 명백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Tis bargain'd 'twixt us twain, being alone, / That she shall still be curst in company” (II. i. 297-98)라는 Petruccio의 말만을 받아들여 “I know not what to say, but give me your hands. God send you joy, Petruccio, 'tis a match” (II. i. 311-12)라고 서둘러 짝을 지으려는 Baptista를 볼 때, 결국 “사랑” 운운 했던 것은 허울에 불과하며 Kate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려갈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식 이후에 본격적인 “길들이기”의 단계에 진입한다. Petruccio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그는 Kate에게서 일상적인 의식주를 박탈하는데, 그것을 다른 아닌 사랑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이 그의 계산된 전략이다.

Pet. Ay, and amid this hurly I intend
That all is done in reverend care of her.

.....

This is a way to kill a wife with kindness,
And thus I'll curb her mad and headstrong humour.

(IV. i. 190-91, 195-96)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남편으로서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억압의 적나라한 형태인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 역시 결혼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여성을 남편이 얼마나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예에 다름아니다.

둘째로 Petruccio는 현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면서 Kate에게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미 청혼의 과정에서 Kate의 거친 행동에 대해 “I find you passing gentle” (II. i. 236)이라고 말하며 거꾸로 해석했던 데에서도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현실인 시간과 자연까지도 멋대로 바꾸려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Katharina는 처음에는 어느정도 뻣뻣함이 누그러지다가 다시 반항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해와 달의 장면 (4막 5장)에서 Petruccio의 방식을 완전히 터득하게 된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서 해를 달이라고 우기는 Petruccio에게 Kate는 처음에는 “I know it is the sun that shines so bright” (IV. v. 7)라고 대꾸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Petruccio가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해서 는 도저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억지를 재치있게 받아 넘긴다.

Hor. Say as he says, or we shall never go.
Kath. Forward, I pray, since we have come so far,
And be it moon, or sun, or what you please.
And if you please to call it a rush-candle,

7) 이에 대하여 Leggatt는 “The shrew's unorthodox behaviour has its value, forcing attention to her personality and her wishes, keeping her from being simply a counter in a social game”이라고 언급한다. Alexander Leggatt, *Shakespeare's Comedy of Love* (London: Methuen, 1974), p. 51.

Henceforth I vow it shall be so for me.

Pet. I say it is the moon.

Kath. I know it is the moon.

Pet. Nay, then you lie. It is the blessed sun.

Kath. Then, God be blest, it is the blessed sun.

But sun it is not, when you say it is not,
And the moon changes even as your mind.

What you will have it nam'd, even that it is,
And so it shall be so for Katherine.

(IV. v. 11-22)

여기에서 Kate는 아버지의 집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달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그의 마음을 폭인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Petruchio가 Vincentio를 보고 “gentle mistress”라고 부르며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장면에서는 그보다도 오히려 한술을 더 뜬다.

Kath. Young budding virgin, fair, and fresh, and sweet,
Whither away, or where is thy abode?
Happy the parents of so fair a child
Happier the man whom favourable stars
Allots thee for his lovely bedfellow.

(IV. v. 36-40)

Kate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Petruchio가 시키는 대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일에까지 상상력을 적용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⁸⁾

마지막 장면에서의 Katherine의 변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The Taming of the Shrew* 전반에 걸쳐서 인물들이 변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물들이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극이 Induction이 있는 극중 극이라는 점 등이 Kate의 발언을 일종의 연기로 보는 시각을 뒷받침해 준다.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제 확고해졌음은 Petruchio를 “Husband”라고 부르는 Kate와 그녀에게 키스를 요구하는 Petruchio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되었으며(V. i. 130-38), 그러한 기반 위에서 Kate는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녀를 길들이는 Petruchio의 태도도 사실은 폭군이라는 역할의 수행에 다름 아니며, 이는 tailor를 몰아세우면서도 뒤로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본심이 아님을 밝히려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의무에 대한 Kate의 “훈계”를 살펴보자. 그녀는 처음에는 “Thy husband is thy lord, thy life, thy keeper/Thy head, thy sovereign” (V. ii. 147-48)이라고 말하며 부부의 관계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보호로 이루어지며 군신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는

8) Coppelia Kahn도 이부분에 주목하는데, 그녀는 Kate가 남편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보다는, 외면적으로 복종을 하는 댓가로 정신적, 지적인 자유를 얻어내는 타협을 하고 있다고 본다. *Man's Estate: Masculine Identity in Shakespear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pp.112-13 참조.

상투적인 일반론을 펼친다. 그러나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어조의 변화가 드러난다.

Kath. Come, come, you froward and unable worms,
 My mind hath been as big as one of yours,
 My heart as great, my reason haply more,
 To bandy word for word and frown for frown.
But now I see our lances are but straws,
 Our strength as weak, our weakness past compare,
 That seeming to be most which we indeed least are.
 Then vail your stomachs, *for it is no boot,*
 And place your hands below your husband's foot
 In token of which duty, if he please,
 My hand is ready, may it do him ease.

(V. ii. 170-80. 이탤릭체 인용자)

이 대사는 Kate의 깨달음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지금까지 자신의 반항은 결국 아무 힘도 없는 소용없는 몸짓이었으며,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나마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몫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Kate가 혼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여성의 본분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다분히 과시적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르러 Kate와 대조를 이루며 뜻 남성들의 구애의 대상이 되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비쳐졌던 Bianca에게도 반항기질이 있었음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녀야말로 그런 원리를 이미 터득하고 정숙하고 조신한 숙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Kate의 깨달음은 “shrew”라는 단계와 “길들이기”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므로 그녀는 Bianca보다도 능숙하고 과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의 본분 운운하며 혼계하는 그녀의 말에 담겨있는 아이러니가 명백하게 밝혀진다.⁹⁾ Katherina는 정말로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채 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도 명백하다. 아무리 요령있게 실속을 차리며 살더라도 여성의 행동반경은 가부장제라는 테두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¹⁰⁾

9) 그러나 사실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결코 명백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 듯하다. 이 마지막 부분을 아이러니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비평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비교적 최근의 글 중에서는, Arden Edition의 편집자인 Brian Morris가 “There can be no question but that the ‘obedience’ speech is meant to be a final statement on the subject of love and marriage”라고 하면서 Katherina의 마지막 발언이 아이러니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석한다. Morris ed., 앞의 책, pp. 144-45.

10) Coppelia Kahn은 이에 대하여 “It is Kate’s submission to him that makes Petruchio a man, finally and indisputably”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신화 밑에는 반대의 신화, 즉 남성의 남성다움을 만들어내는 힘은 여성에게 있다는 신화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 Kahn, 앞의 책, pp. 117-18 참조.

III.

Troilus와 변치 않을 굳은 사랑을 맹세했던 Cressida는 Greek 진영으로 간지 하루도 못되어 이미 Diomedes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Cressida에 대해 Thersites는 “My mind is now turn'd whore” (V. ii. 113)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그녀의 변심을 창녀의 음탕함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창녀로 나누는 이분법은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상속자를 보장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Diomedes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Diom. He [Menelaus], like a puling cuckold, would drink up
The lees and dregs of a flat tamed piece;
You[Paris], like a lecher, out of whorish loins
Are pleas'd to breed out your inheritors.

(IV. i. 62-65.)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Menelaus와 Paris를 신랄하게 경멸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에 내포된 Helen에 대한 평가는 훨씬 지독하다. 특히 Paris는 Helen의 “whorish loins”에서 상속자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 Diomedes의 멸시를 불러일으키는데, Cressida의 변심도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이데올로기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Troilus와 Cressida의 사랑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출발한다. 이는 Troy 전쟁의 원인인 Helen과 Paris의 관계가 서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상투적인 연애대사를 늘어놓는 나른하고 따분한 분위기로 제시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정열적이고 살아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The Taming of the Shrew*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소유물로 파악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세계이며, Troilus의 사고도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roil. Why, she [Helen] is a pearl
Whose price hath launch'd above a thousand ships,
And turn'd crown'd kings to merchants.

(II. ii. 82-84)

여성을 진주에 비유하는 것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가치를 자로 재듯이, 혹은 돈으로 세듯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Troilus가 Cressida에게 보내는 기사도적인 사랑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서, 그가 지니는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애초부터 지니는 한계를 보여준다.¹¹⁾ 실제

11) Raymond Southall은 *Troilus*의 세계를 자본주의의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파악하며 Troilus의 사랑도 자본주의적 사고에 철저히 물들어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한다. 이는 Troilus를 “ardent, faithful lover”로 보았던 G. Wilson Knight나 “love”와 “honour”를 지닌 인물로 보았던 Tillyard식의 평가의 잘못을 시정하는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Southall은 Troilus의 사랑에 내포된 긍정적 측면의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Southall, “*Troilus and Cressida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Arnold Kettle ed., *Shakespeare in a Changing World* (London: Lawrence & Wishart, 1964), pp.217-232; Wilson Knight, *The Wheel of Fire* (1930; rpt. New York: Methuen, 1961), p.62; Tillyard, 앞의 책, p.78 참조.

로 그는 Cressida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진주에, 자신을 상인에, Pandarus를 배에 비유하기도 한다(I. i. 100-104). 더구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Troilus는 대상 자체가 지닌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가치평가는 Cressida를 보는 눈에도 드러나서 그녀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상화시켜서 보도록 작용한다.

Cressida는 재기발랄하며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이러한 점은 그녀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녀가 깊이 있고 끈기 있는 성품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Troilus가 앞에 있을 때에는 열정을 다해 사랑할 줄 알지만,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면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 인물인 것이다. 더구나 Cressida와 Troilus의 관계는 신분의 차이에다가 그녀가 적진으로 넘어간 Calchas의 딸이라는 점으로 인해 몇몇이 드러내놓고 설 자리가 없는 관계이며, Troilus는 그녀를 생각하며 “wallow in the lily beds” (III. ii. 11)할 것을 상상할 뿐, 결혼은 생각지도 않는다. Cressida가 Troy에 있을 때에도 숨겨져야 되는 이들의 사랑이 그녀가 Greek 진영으로 가고 난 후에는 그나마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현실감각이 뛰어난 Cressida는 이를 직감하며, 이는 “be thou but true of heart” (IV. iv. 57)라고 당부하는 Troilus에게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이는 데에서 드러난다. 반면 이상주의에 젖은 Troilus는 그녀가 Greek 진영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이는 첫 반응이 “Is it so concluded?” (IV. iv. 68) 뿐이며, 그녀를 보내면서 오히려 Greek 진영의 찬사를 늘어놓을 정도이다. 이처럼 주관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으로 반응하는 Troilus와 본능에 충실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나면서도 피상적인 Cressida의 관계는 그녀가 처한 미묘한 정치적 입장과 겹쳐지면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Greek 진영에 도착한 Cressida는 Achilles가 “I’ll take that winter from your lips” (IV. v. 24)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우울한 모습으로 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환영과 키스를 받으면서 그녀는 “In kissing, do you render or receive?”라고 Menelaus에게 농담을 걸기 시작하며 자신의 발랄함과 재치를 한껏 과시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Cressida가 Diomedes의 유혹 앞에서 Troilus와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먼 곳에 있는 불확실한 사랑에 매달리느니 당장의 본능을 좇아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인 Diomedes를 택하는 것이다. Troilus가 사랑의 맹세의 징표로 준 sleeve를 Diomedes에게 빼앗기면서 하는 그녀의 말(“’Twas one’s that lov’d me better than you will./But now you have it, take it.” V. ii. 89-90)은 그녀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대사이다. 그런데 Troilus의 사랑이 주관주의와 이상주의에 젖어 있으며, 또한 기사도적인 그의 태도도 사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반면, Diomedes는 진지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Cressida를 희롱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Troy 진영과 Greek 진영의 특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Troilus를 배신하고 그보다 열등한 인물인 Diomedes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Cressida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이 더 맹렬해질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²⁾

12) 근래에 와서, 본고와는 다른 시각이지만, Cressida의 변심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비평가들도 있다. Gayle Greene은 Cressida의 변심을 여성을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과 연관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Cressida의 선택은 가부장제의 성도덕의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 자체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정숙함을 강요하는 성이데올로기의 벗어난 보다 자유롭고 솔직한 본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여성해방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라고까지 평가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 자신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인습이라는 틀로 해석한다는 데에 있다.

Cress. Troilus, farewell! One eye yet looks on thee
 But with my heart the other eye doth see.
 Ah, poor our sex! this fault in us I find:
 The errors of our eye directs our mind.
 What error leads must err: O then conclude,
 Minds sway'd by eyes are full of turpitude.

(V. ii. 106-111)

여기에서 Cressida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모든 여성의 문제로 일반화시켜서 여자란 다 그런 것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로 넘겨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Was Cressid here?...She was not, sure” (V. ii. 124-5)라고 말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Troilus의 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Cressida의 모습이 실제의 그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여성을 이상화함으로써 이에 맞추도록 여성을 통제하려는 이상주의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그는 Cressida의 일반화와는 정반대로

Troil. Let it not be believ'd for womanhood.
 Think, we had mothers; do not give advantage
 To stubborn critics, apt, without a theme
 For depravation, to square the general sex
 By Cressid's rule: rather, think this is not Cressid.

(V. ii. 128-32)

라는 말로 Cressida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그의 이

시켜 파악하며, Stephen J. Lynch는 Cressida는 남성들이 그녀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녀가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inconsistency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반면에 Rene Girard는 첫날밤을 보낸 후의 Troilus의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며 실제로는 Troilus가 먼저 변신했으므로 Cressida에게 탓을 돌릴 입장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평가들은 대체로 변명조로 Cressida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며, 그녀의 행위가 지닐 수 있는 건강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녀의 문제를 가부장제의 성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Greene, “Shakespeare's Cressida: 'A kind of self,'” in Carolyn Ruth Swift Lenz, Gale Greene & Carol Thomas Neely ed., *The Woman's Part: Feminist Criticism of Shakespeare*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80), pp.133-149; Lynch, “Shakespeare's Cressida: 'A Woman of Quick Sense,'” *PQ* 1984. vol. 63, no. 2, pp. 357-67; Girard, “The Politics of Desire in *Troilus and Cressida*,” in Patricia Parker and Geoffrey Hartman ed., *Shakespeare and the Question of Theory* (New York: Methuen, 1985), pp. 188-209 참조.

상주의를 고수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때 그가 Cressida와 다른 유형의 여성으로 상징하는 것이 “mother”인데, 이는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mother”라는 존재는 이러한 성이데올로기에 내포된 합법적이고 안전한 상속자의 문제를 부각시켜 주면서, 여성의 이상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해 준다. 결국 Cressida나 Troilus 모두 자신들의 문제를 인습적인 사고방식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때문에 Cressida의 솔직한 행동방식이 본능에 따르는 건강성을 지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가부장제의 논리를 굳혀주는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이다.

IV.

이처럼 자신의 삶을 어떤 틀로 이해하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의식적으로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Cressida와 Katherina를 평가하는 데에 관건이 된다. Kate의 경우 결혼을 거래로 취급하고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암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저항이 그녀의 shrewishness로 표현되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정당성을 획득하며 건강함을 내포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길들여져” 줌으로써, 즉 그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의 힘 앞에서 개인으로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지는 모르지만, 가부장 사회 자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Cressida의 경우도 자신의 본능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현실감각에 의거해 취한 행동이 건강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제의 논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려함으로써 스스로를 창녀형으로 규정하며 이에 안주하려고 한다. 이러한 Cressida의 태도는 가부장제의 성이데올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성의 해방에 기여하기는 커녕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Katherina나 Cressida 모두 가부장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억압과 상품화에 대하여 도전을 하여 이때문에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고 거부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당성과 건강함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결정적인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